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백락천의 시를 본떠 스스로의 회포를 달래다 自遣白樂天

칭찬 비방 분분해도 내가 어찌 하리오
譽毀紛紛奈我何
하늘 우러러 매로 한번 높은 노래 부른다.
仰天時復一高歌
기쁨은 좋은 일 따라 해마다 줄어들고
歡隨好事年年減
질병은 강한 근심 꽃아 자꾸만 많아지네.
病逐窮愁故故多
막걸리 몇 사발은 혼자서 마시자니
濁酒數杯聊獨自
흰 머리로 온갖 일들 이미 그물 따르네.
白頭千事已從他
어느 이 다시금 양옹의 맥 물어볼까
誰人更問揚雄宅
물목길엔 그물 걸릴 참새조차 없네.
門巷兼無雀可羅

태세일에 병을 안고 짓다 太歲日 抱疾有作

이날이 좋은 날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誰言此日是佳辰
제철에 마음 쓰여 더욱 마음 상하네.
節序關心更損神
눈병 들어 잠 못 들은 수세(守歲) 할 아닐러니
病眼不眠非守歲
가난한 집 봄맞이 할 솔조차 없는 것일.
貧家無酒可迎春
이제껏 서글프게 남은 풍속 지켰어오
至今怛怛存遺俗
변화한 곳 가고 머뭇 남에게 내맡겼네.
行處繁華屬別人
다만 강한 근심과 쇠약한 뜻만 남아
只有窮愁與衰意
일시에 머리 터럭 새로 함께 세웠네.
一時俱入鬢絲新

제17회 도산학술연구원 학술강연회 개최

도산학술연구원(원장 성봉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곡문화관 4층에서 권호선(사)KT충남본부동우회부회장, 만회, 탄웅, 유희당 종중 및 종원, 유림과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도산학술연구원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용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회로 만회선생의 문학세계와 유희당 선생의 대외인식에 대하여 학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조명했다.



△도산선생 서당(대전시 탄방동)



△유희당 정사(대전시 무수동)

有懷堂 權以鎮의 對外認識

■ 김문식 (단국대 교수)

1. 권이진은 누구인가?
유희당 권이진은 속종 대부터 영조 대까지 내외의 요직을 고루 역임했던 실무형 관료이다. 조부인 권시는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같은 서인계 학인들과 교류하고, 허목, 윤희와 같은 남인계 학인들과 교류하면서 양 계열의 조정자로 활동하였다. 권이진은 관리로 활동하는 동안 조부와 마찬가지로 특정정파의 성향을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를 따라 벼슬길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1689년에 외조부 송시열의 제후도 유배길을 배웅하여 당진까지 따라갔다가 정읍에서 그의 죽음까지 목격하였다.
사환기는 1686년 승문원 부정자로 임명되는 것에서 시작하여 사망하기 8개월 전인 1734년 3월까지 계속된다. 권이진은 소론 영수인 남구만을 통해 발탁되었고, 40여 년에 걸쳐 내외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며 경륜을 펼쳤다. 특히 그는 2년간 호조관서로 있으면서 국가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였고, 동래부사와 평안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일본과 청의 침략 가능성을 거론하고 대비책을 마련했다. 또한 1724년에는 사문부사로 북경을 방문하여 조선의 북방 경비와 청의 실상을 살피는 기회를 가졌다.

지는 가학을 계승하고 정파 간의 분열과 대립이 극심했던 정국에서 노론, 소론, 남인 모두와 교류했다. 그가 40여년의 사환기를 비교적 순탄하게 지낸 것은 실무관료로서의 능력과 함께 특정정파에 치중하지 않은 처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권이진은 윤종과 사제의 연을 맺고 남구만, 최석정, 이광좌 같은 소론계 인물들과 밀접한 교류했으며, 후대로 갈수록 남인계 인물로 비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권이진의 학문은 주자학 범주에 있었다. 그가 송시열의 유지를 받아 간행한 책은 주자의 주석이 포함된 '논어'와 '맹자'이고, 평소에 즐겨 읽었던 책은 '대학'과 '근시록'이며, 지방으로 나가서는 '심경'을 숙독했다. 그는 이항의 사단칠정론에 이발(理發)의 측면 외에 기발(氣發)의 측면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재해석하였다.
권이진은 주자학 내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주력하였고, 16세기 이후 정립된 조선주자학의 성과를 충실하게 계승했다. 또 학적으로 전수된 학문의 계승과 함께 이항과 송시열의 학문을 중시함으로써 학문적 포용성을 보여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죽초유고(竹樵遺稿) 발간

香村 權五昌의 祖父 竹樵公(諱 泰陽)의 죽초유고(竹樵遺稿)가 웅그래픽(刊)으로 최근 발간됐다.

죽초공은 한화에 증진하고 당시 예천에 개살된 대장학원을 수료하고 영주군청에 근무했다. 이어 향리에서 洞長과 금음 조합장을 지냈으며 유계(儒契)를 조직하

고 강호제현과 香山詩學을 가지며 후학을 훈육했다. 84세로卒했으며 옹의 장남 寧植은 민선 안정면장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명망을 얻었으며 또한 그의 장손 五鼎은 노동부지방사무소장, 차손 五崇은 영주시청 지역농업기술센터長 三孫 五運은 중앙선관위 시사무국장을 역임했다. 五昌의 부친 諱 寧植은 용은 가운데로 仁者無敵이라는 孟子의 가르침을 강조하였다.
(권오복 편집위원)



우항 권이혁 전장관 에세이

인생의 정점

몇 살을 인생의 정점(頂點)으로 하는 나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빈번하게 생각해 왔는데 9순을 정점으로 하기로 했다. 즉 9순 때까지 인생길을 오르고 그 후부터는 내려가는 것이다. 9순을 인생의 정점의 해로 삼아 등산하고 그 후부터 하산한다는 이야기이다.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신의 건강상태나 환경상황은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일단 떠나게 될 날을 예정해 놓고 그때까지의 인생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관하여 말하려는 사람은 드물지만 절친한 친구들이 만나서 환담할 때는 화제가 되기도 한다. 책을 읽다보면 이러한 가상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지식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의 경우 9순을 정점으로 삼고 있지만 100세 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장 10년의 여생(餘生)이 있다면 100세를 넘게 사는 것은 분명하다. 100세 넘게 사는 것이 훌륭하고 값진 일임은 물론이지만 왠지 그런 욕심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부족하거나 불만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느끼면 늙어서라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크게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겪고 정점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관하여는 전에도 쓴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다.

여열(余熱)이라는 단어가 있다. 아직 다 식지 않고 남아 있는 열, 고열(高熱) 뒤에 남아 있는 신열(身熱), 심한 더위 뒤의 남은 더위 등 여러 가지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인생에도 여열이 있다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10년이야말로 병상에 누워 있는 1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건강수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치매에 걸리거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99 88'이라는 건배 슬로건과 같이 99세까지 팔팔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는 것이다. 100세 넘게 사는 것이 훌륭하고 값진 일임은 물론이지만 왠지 그런 욕심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부족하거나 불만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느끼면 늙어서라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크게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겪고 정점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관하여는 전에도 쓴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다.

여열(余熱)이라는 단어가 있다. 아직 다 식지 않고 남아 있는 열, 고열(高熱)

뒤에 남아 있는 신열(身熱), 심한 더위 뒤의 남은 더위 등 여러 가지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인생에도 여열이 있다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10년이야말로 병상에 누워 있는 1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건강수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치매에 걸리거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99 88'이라는 건배 슬로건과 같이 99세까지 팔팔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는 것이다. 100세 넘게 사는 것이 훌륭하고 값진 일임은 물론이지만 왠지 그런 욕심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부족하거나 불만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느끼면 늙어서라도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크게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겪고 정점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관하여는 전에도 쓴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다.

여열(余熱)이라는 단어가 있다. 아직 다 식지 않고 남아 있는 열, 고열(高熱)

KBS 승승장구에 출연한 보아(權寶雅)



가수 보아(27세)는 2012.6.5 KBS 2 승승장구에 출연해 웃음을 머금고 가정사를 이야기하였다. 보아는 어머니 생영자와 아버지 사이에서 1986년 11월 5일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에서 권보아(權寶雅)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남양주시의 양정초등학교에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게 꿈이었다. 평범한 목장집 딸이었다는 보아는, 연습생 시절부터 기울어진 가세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히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우유를 짜 송아지에 먹이며 고생하던 추억을 얘기하였다. 아버지는 TBC 사운드엔지니어였는데 목장을 경영하다 IMF여파로 빛 더미에 얽게 되고 그 무렵 음악의 천부적 소질로 1998년 12세에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씨에 의해 발탁되어 13세에 가요계에 데뷔했다. 보아는 인터뷰에서 "노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무대에 설 수는 없어요. 가수가 되기 위해 3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참아야 했어요"라 하였다.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NHK나눔사의 도움으로 일본어를 익히며 음반 100만장

을 판매하면서 일본 오리콘차트 1위에 올랐다.

권보아(權寶雅)는 이때부터 가장아닌 가장으로서 가정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실트했다. 그녀는 2009년 중국에서 두 번째로 1위에 올랐고 2011년 SBS K팝 스타가 되었다. 세계적인 뮤직비디오 감독인 조셉 칸은 "보아는 굉장히 퍼포먼스적으로 춤과 노래가 모두 뛰어난 환상적인 가수다. 세계적인 어떤 스타들과 비교해도 보아만큼 퍼포먼스를 잘 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한국은 보아를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음악제'와 9월 29일 뉴욕에서 열린 '미주 한인 100주년 기념 한인 대축제'에 출연하였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서울을 홍보하는 노래 〈서울의 빛〉으로 제1회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며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2004년 1월 15일, 일본에서 3번째 정규 앨범 《LOVE & HONESTY》가 발매되었고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해 보아의 통산 3번째 1위

였다. 이 앨범으로 미국의 빌보드차트, 일본의 오리콘차트, 영국의 UK차트 등 공신력있는 음악 차트를 토대로 세계 각국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여 순위를 매기는 유나이티드 월드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2005년 보아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영어교과서 《Totally true of》(Making an International star)라는 글에 국제적인 스타의 성공 사례로 실려 화제를 모았다.

보아는 MBC 《음악캠프》에서 1위를 수상했고, SBS 《생방송 인기가요》에서는 7월부터 3주 연속으로 1위에 해당하는 '뮤티즌 송'을 수상했다.

2008년 10월 21일 첫 번째 싱글 "Eat You Up"을 발매해 빌보드 핫 댄스클럽 플레이차트 8위에 올랐으며 2011년 8월 2일 타이틀곡 'Hurricane Venus'의 티저도 공개했다. "Hurricane Venus"는 공개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다. 보아는 이후 많은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씨스타의 효린은 보아를 존경했다. 그 이후 2012년 6월 현재 두 장의 싱글이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에 오름으로서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다.

승승장구에 두 오빠가 화면으로 나왔는데 큰 오빠 권순훤씨는 서울음대 출신 피아니스트이고 작은 오빠 권순욱씨는 뮤직비디오 감독이다. 그중 보아는 작은 오빠와 가까이 지낸다. 권순욱씨는 '보아는 어릴 때부터 승부근성이 강해 매번 싸우고 들어왔으며 운동회를 하면 항상 1등이었다'고 밝혔다.

보아를 비롯해 두 오빠들이 모두 음악 분야에 종사, 음악가 집안이며 특히 보아는 춤과 노래의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음이 분명했다. (KBC보도 인용)

권중달교수 황제뽑기 출간

본보 자문위원인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는 자치투쟁 행진취기의 두 번째 책인 "황제 뽑기"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중국 한나라시대부터 당나라 시대까지 태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황제가 죽는 경우에 그 후임황제를 어떻게 뽑았는가를 추적하여 서술한 책이다.

후임 황제를 정하지 못하고 황제가 죽는 경우에 중신(重臣)들이 후임황제를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들은 정치적 배경이 없는 사람을 고르려고 애썼다.

또 황태후가 황제를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 황태후는 수렴청정이란 제도를 통



하여 실제로 황제 노릇을 하고 자 하여 되도록 나이 어린 사람을 뽑았다.

심지어는 환관들이 황제를 뽑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전임 황제의 유언도 조작하고,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황제를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

이 책을 통하여 권교수는 겉으로 보아는 역사와 그 속에 감추어진 실상을 보려고 했고, 따라서 역사를 다시 새롭게 보려



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출간: 도서출판 삼화